



태국 방콕 교외 지역에 생긴 불교전용마트. 카트에 불상, 승복, 서적 등 불교용품들을 담아 쇼핑할 수 있는 창고형 매장이자다.

# 카트 끌며 향·승복 구매... 품목만 100만 가지

## 태국, 7천여평 대형 불교마트 스님들에 인기

주황색 가사를 똑같이 맞춰 입은 스님들이 저마다 카트를 밀고 쇼핑하는 모습. 상상이 쉽지는 않겠지만 태국 방콕에서는 이미 익숙한 풍경이 돼 버렸다.

태국어로 승려용품이란 뜻인 '항상카판(Hang Sangkapan)'은 태국에 있는 불교용품 매장 중 가장 규모가 큰 창고형 상점이다. 양초, 불상, 제단, CD, 서적 등 스님들을 위

한 온갖 물품이 진열돼 있으며 판매하는 품목만 해도 100만 가지 이상이나 된다. 합성섬유로 만든 3만원 가량의 승복부터 수십만원 하는 고급 승복까지 종류도 여러 가지. 때문에 매장에 들르면 한 시간 쇼핑은 기본이다.

손자의 사미계 의식에 필요한 용품을 사러 나온 할머니부터 승려, 재가자까지 고객들의 반응도 호의적이

다. 토요일마다 이곳을 방문한다는 프라 승양 군복크루에는 "진짜 마트에서 쇼핑하는 기분"이라며 "양초, 향, 승복 등 불교용품을 이처럼 편리하고 편안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건 미처 생각도 못했었다"며 반색했다.

항상카판을 처음 연 사를 상팔리는 몇 해 전 스님들을 위해 단체 용품을 구입하려다 여러 군데를 헤맨 경험을 떠올려 '스님전용마트'를 열게 됐다. 한 번에 다양한 품목의 대량 구매가 가능한 마트에서 힌트를 얻은 것이다. 주차 공간은 물론

이전까지 고객 서비스에 주력하던 프라 승양 군복크루에는 "진짜 마트에서 쇼핑하는 기분"이라며 "양초, 향, 승복 등 불교용품을 이처럼 편리하고 편안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건 미처 생각도 못했었다"며 반색했다.

스님 전용마트가 생길 수 있었던 건 태국이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가능했다. 6천5백만 인구 가운데 불자가 6천1백만 명이나 되는 태국은 현재 승려만 해도 30만 명이다. 게다가

남성들은 일생에 한 번은 절에 들어가 2-3주 동안 승려 생활을 해야 한다. 꾸준한 수요와 고객층이 보장된 안정적 시장이다 보니 색다른 시도가 통했던 것. 또한 지난해 카시콘 은행 산하 카시콘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태국 불교용품 시장은 우리나라 돈으로 3천6백억 원 규모에 이른다. 이처럼 불교용품 시장이 경기를 잘 타지 않는 분야라는 점을 떠올리면 7천여평에 이르는 대형마트가 무색하지 않을 것이다.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 '명상·요가' 넘어 불법 알린다

美 콜로라도 포크벨리에 피어난 법향

미국의 대표적인 관광도시, 경제 도시로 주목받는 콜로라도 그렌우드 스프링스(Glenwood Springs)에서 법향이 피어나고 있다.

(포스트 인디펜던트) 지는 7월 27일 "자유주의 불교(liberal Buddhism) 성향의 '소로승가(Thoreau sangha)'나 유니테리언(Unitarian) 성향의 불교공동체 등이 이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전통적인 불교의 모습을 찾는 것은 쉽지 않다"고 전제하고 "3년 전 이곳으로 이주한 재가법사 안정적 시장이다 보니 색다른 시도가 통했던 것. 또한 지난해 카시콘 은행 산하 카시콘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태국 불교용품 시장은 우리나라 돈으로 3천6백억 원 규모에 이른다. 이처럼 불교용품 시장이 경기를 잘 타지 않는 분야라는 점을 떠올리면 7천여평에 이르는 대형마트가 무색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 콜로라도에서 불교공동체를 운영하는 폴라 발렌티 재가법사

동체를 운영하고 있다. 자신이 살고 있는 그렌우드 스프링스에는 매주 2차례 가정법회를 병행하고 있고, 카번데일에서는 매주 수요일 고원에서 야외법회를 병행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그렌우드 스프링스의 벨투스 공원(Veltus Park)에서 불교축제를 개최, 지역 주민의 이목을 끌기도 했다.

또한 "불성은 모든 종교를 뛰어넘는 삶 고유의 개념"이라고 강조한 폴라 발렌티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렌우드 스프링스 불교공동체 회원으로 활동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그렌우드 스프링스에서 불교는 명상, 집술, 요가 등 다양한 방법에서 하나의 단편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지적한 발렌티는 "그 보다는 전통의 모습을 간직한 불교를 지역 주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에 포교 활동을 전개하게 됐다"고 말했다.

현재 발렌티는 포크 벨리를 중심으로 그렌우드 스프링스와 카번데일(Carbondale) 두 곳에서 불교공

# "불교학, 현대사회와 접목할 수 있어야"

불교학 최대 지원, 홍콩 로버트 H. N. Ho 가족재단  
불교학 관련 교수·연구자 190만 달러 지원

서양 불교학계 발전에 재정적 산파로서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한 곳을 꼽자면 '로버트 H. N. Ho 가족재단(하홍의가족기금何鴻毅家族基金, 이하 재단)'이 단연 으뜸이다. 일명 '호의 아버지(Mr. Ho's father)'로 불리는 이 지원 재단은 2005년 로버트 H. N. Ho에 의해 설립되어 불교학 연구 분야와 중국예술 및 문화 분야 지원에 힘쓰고 있다.

(뉴욕타임즈) 지는 7월 27일 "지원 재단은 하버드대학교, 스탠포드대학교, 코넬드(Cornell) 미술연구소(런던 소재) 등에서 운영하는 불교 관련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5월 말 미국 교육학회 운영위원회(American Council of Learned Societies) 측에 대학에서 활동하고 있는 불교학 관련 교수와 연구자 지원 기금 190만달러를 전달했다"고 전제하고, 재단 이사장 로버트 Y.C. Ho와의 인터뷰를 게재해 주목된다.

(뉴욕타임즈) 지는 로버트 Y.C. Ho의 말을 인용, "불교학을 현대사회와 접목하는 데 제반 여건을 조성

하는 게 지원 재단의 궁극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로버트 Y.C. Ho는 지원 재단을 설립한 로버트 H. N. Ho의 장남이다. 다음은 인터뷰를 번역한 내용이다.

◇ 불교에 초점을 맞춰 지원하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로버트 Y.C. Ho: 할머니 클라라(Clara) 여사는 1935년 홍콩에서 '퉁링 록 위엔(Tung Lin Kok Yuen) 사원'을 세운 뒤 홍콩과 캐나다 두 곳에 각각 불교자선단체를 설립하셨을 정도로, 불교는 우리 가족에게 가장 중요한 고리였습니다. 할머니의 모습을 보고 자란 부친 로버트 H. N. Ho가 2005년 지원 재단을 설립하고 불교학 분야와 중국예술 및 문화 분야의 지원에 주목했던 것 역시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부친은 특히 중국예술 및 문화 분야에 관심이 많았는데, 그는 중국예술과 문화의 고전성, 전통성에 깊이 몰입했고, 그것에 현대성을 불어넣는 연구와 작업에 후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니다.

◇ 불교학은 현재보다는 과거와 더

욱 밀접해 있는 듯합니다. 그런 불교를 오늘의 시점으로 연구하고 파악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 로버트 Y.C. Ho: 불교학은 빨리, 산스크리트어, 티베트어, 중국어, 일본어 등으로 기록된 옛 문헌 자료를 연구하는 탓에 '고리타분하다'는 인상을 떨치기 힘든 게 사실입니다. 이는 옛 문헌 자료를 읽고 토론한다는 게 과연 현대 사회와 어느 정도의 관련성을 가지고 있을까 하는 의문을 들게 하는 대목입니다.

반면 소장학자들은 불교를 새로운 분야와 접목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교와 정치, 불교와 환경, 분쟁 해결, 불교와 심리학 등입니다. 로버트 H. N. Ho Family Foundation의 지원은 후자, 즉 '동시대와 접목된 불교연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원 재단은 해당 분야 연구 풍토가 비옥해지고, 그 성과물이 동시대인의 삶 곳곳에 스며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 재단의 지원이 동양과 비교해 서양의 대학과 연구소에 편중되어 있습니까. 이유는 무엇입니까?

- 로버트 Y.C. Ho: 지원 재단에서 대상을 선정할 때, 연구 평가 외에도



로버트 H. N. Ho 가족재단의 설립자인 로버트 H. N. Ho.(좌)와 그의 아들인 로버트 Y.C. Ho(우).

그 연구가 동시대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가하는 '현대성'도 고려합니다. 지금까지 지원이 북미와 유럽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사실 아시아에 대한 지원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 여건이 충족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중앙정부 주도형' 연구소가 대부분인데, 이 점이 지원 절차를 까다롭게 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는 다른 경우입니다. 태국과 스리랑카 등지에는 소위 '불교대학'이라는 연구소들이 있지만 대부분 중세 인도 사원에서 전래된 연구 방법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반면 홍콩에서는 불교예술과 문화에 초점을 맞춘 지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홍콩대학에 '불교



학 연구센터(Buddhist Studies Center)'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 홍콩의 불교예술과 문화 분야를 지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로버트 Y.C. Ho: 홍콩 지방정부는 '중앙(중국)과 지방(홍콩)을 회통하는 예술·문화의 허브'로서 홍콩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지원 재단은 '회통의 키(key)가 불교'라는 데 주목했던 것입니다. 이는 로버트 H. N. Ho Family Foundation이 '전통의 불교 영역을 확대하고, 여기에 불교의 대중화도 담보할 수 있는 연구 분야나 예술·문화 분야를 지원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게 하는 대목입니다.

오종욱 편집위원

## 불상, "세우지마" VS "세우게 해달라"

네팔 스님들 사원건축 반대에 시위 나서

네팔에서 스님들이 도로 점거 시위에 나섰다. 현지시간으로 7월 29일 사원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는 정부에 항의하며 승려들과 지지자 100여 명이 카트만두 거리로 나선 것이다.

네팔 정부 청사 앞에서 시위를 벌인 이들은 "네팔은 부처가 태어난 곳이다. 불상 세우는 걸 허하라"고 관계당국에 요구했다.

앞서 네팔 정부 당국은 히말라야 남쪽 수르켓(Surkhet) 지역에 5미터 크기의 불상과 사원에 대한 건축 요청을 거부한 바 있다. 이 지역은 고고학자들이 10년 전 불상과

비문을 발굴한 곳이기도 하다. 또한 부처가 태어난 룸비니에서 가까운 곳이기도 하다.

네팔 불교 연합 부회장인 뿌푸 캄베 세르파는 "정부가 사원 건축 불허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대지 않았다"며 "정부가 계속해서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을 경우 더 큰 규모의 시위를 준비할 것이다"라고 뜻을 굽히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폭력이 아닌 평화적인 방법으로 시위를 전개할 것임을 덧붙였다. 이날 시위로 카트만두 시내 교통 운행이 두 시간 동안 차질을 빚었다. 배현진 기자



네팔 스님과 불자 100여 명이 카트만두 시내에서 사원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는 정부에 항의해 대규모 반대 집회를 열었다.

퇴행성 류마티스 디스크환자 희소식

# 관절염·통증

관절 연골을 보충해주는 한약  
통증은 쉽게 호전되고 잠도 편하게자  
7일 ~ 10일이면 호전되는 느낌있어!!!!  
◆한의원 문의상담 02)598-9833

# 희 소 식

# 당뇨·고혈압

당뇨 천연 인슐린 개발  
5일 ~ 7일이면 호전되는 느낌!!!  
여주(모모르디카)하나로 해결!!! 보험보다 낫다.  
방송에서도 식물 인슐린 여주(모모르디카)  
화제 집중!!!  
식물 인슐린 이름값 하네 혈당 강화!!!  
항암효과 원기회복 관상식물의 반란!!!  
◆주문상담문의 02)875-8858

맥스생명공학 ※대리점 모집중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영산재의 범패소리 명상 힐링치유

< 수강생 모집 >

- 범패는 천년을 이어온 영혼의 소리로 우리나라 삼대 성악곡(판소리, 가곡, 범패)의 하나임.
- 범패를 활용한 소리명상 힐링 치유는 인간의 감정과 내면의 세계를 다스리는 이 시대의 정신적 안식처로서의 가장 수승한 수행임.
- 장 소 : 신촌 봉원사 경내
- 일 시 : 매주 금요일 저녁 7:30~9:00
- 수강자격 : 범패소리 명상을 수행하고자 하는 모든 분, 만병의 근원인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
- 수 강 료 : 무료
- 문 의 : (02)393-8027

지도 : 봉원사 법화정토회 처평(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과정
- 중앙승가대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대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남부구치소 교정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이수자

### 범패소리명상힐링연구소(소장 처평)

■ 범패소리명상힐링연구소에서는 각종 상담활동을 비롯 다양한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연구소에 도움을 주실 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서울시 서대문구 봉원사길 75-35

나와 세상이 함께 행복해지는 지혜

# 손기원 박사의 지혜인 명상지도사

제2기 지도사 과정 모집 (1급, 2급)  
늘어나는 '지혜인 명상' 교육 수요에 부응하고자 '지혜인 명상 지도사' 양성 과정 오픈!

지혜인 명상은...

- 한국의 5천년 명상과 진리학습 전통 기반 한국인 명상법 + 서구의 장점 접목
- 우리 고유의 신명나는 인성,소통, 힐링 프로그램
- 선생님 임직원 청소년 일반인 대상 운영 중

▶ 2급 : 10~11월 60시간 ▶ 1급 : 11~12월 60시간  
워크숍, 교재, DVD, 교육 참관, 자격증 수여

▶ 문의 : 02)766-9455 www.onwisdom.com

지혜경영연구소

서울 종로구 내수동 75 용비어천가 1340호